

# 일본의 성인병 동향

## 인구 및 성인병 추이

### 성인병의 동향

日本은 국민보건위생수준이 현저하게 향상하여 공중보건행정적 근대화를 서두르고있다.

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65세, 이상의 노인은 국민 다섯사람에 한사람 이라는 비율이 될 것이라 推趨하고있습니다.

노인세대와 독노인은 핵가족의 증가로 의료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있다.

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위치에서 국민 및 정부가 혼연 일체가되어 지혜를 짜내어 노령에 대한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노인보건법을 1982년 8월 성안 1983년 2월에 발효되게 하였다.

지금의 日本은 성인병에 의한 사망은 총사망율의 약 65%를 차지하고있다. 더구나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년층에서 증가를 하고있어 노령기를 위해하는것부터 점차 이들의 질병에 대한 대책이 급후의 크나큰 과제가 되고있다.

나이가 더해 감에따라 병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몸과 마음에 노쇠해지는 일이 원인이되는 성인병을 장년기 부터의 건강조성이 유지할수있게 지식의 보급 및 암이나 순환기질환을 대상으로한 건강인의 건강진단 사업과 의료시설의 활용 등 종합적 보건의료 및 기능훈련 재택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원화하여 발전시키고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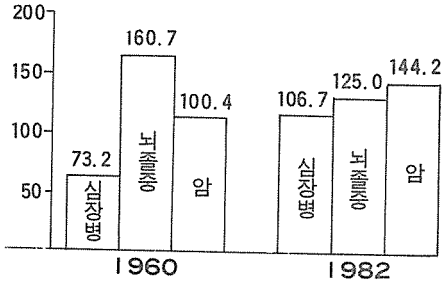
### 인구 및 성인병 추이

1. 전술한 65세 이상의 인구를 총인

구와의 비율을 보면 노인보건법 대상 인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알수있다.

2. 사인의 제 1위는 암이며 1982년의 리병자중 사망자수는 711,883인 이였으며 그중 사인별로 보려는 1위는 암으로 170,130인(23.9%) 2위는 뇌졸중으로 147,537인(20.7%) 제 3위는 심장병으

구분 년도	인 구	65세이상 인 구	증가율 %
1960년	94,302,000	5,398,000	5.7
1980년	117,060,000	10,647,000	9.1
2000년	128,119,000	19,943,000	15.6
2020년	128,115,000	27,950,000	21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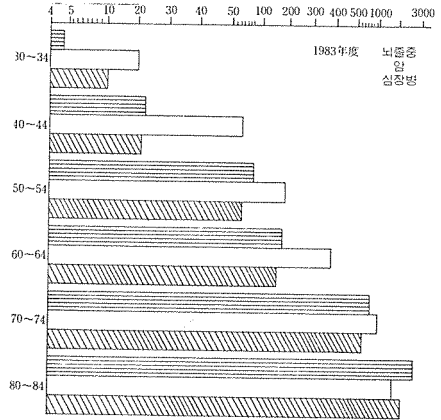


4. 성인병중에서도 암이 급증하고 있으며 1951년에 뇌졸중이 결핵에서 바뀌어 사인의 제 1위였으나 1953년에는 암이 2위로되고, 1958년에는 심장병이 3위로 나타났으며 그후 20수년 2 순위가 계속되어왔으나 이것이 1981년에는 1 순위였던 뇌졸중이 암으로인한 사망이 제 1위가 되었으며 인구10만당 3대성인병 사망을 추이는 다음과 같다.

로 125,905인(17.7%)로 이 3대 성인병에서 62.3%의 사인을 차지하고있다.

3. 늘어나는 성인병이 총사망에서 차지하는 1960년에 44.2%이고 1970년에는 54.7%였고 1980년에는 62.0%로 증가 하여왔으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변화하고 있지않다.

구분 년도	암	뇌졸중	심장병
1980년	23.9%	20.7%	17.7%
1970년	16.8%	25.4%	12.5%
1960년	13.3%	21.2%	9.7%



5. 연령에 따라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는 암 사인이 톱을 차지하고 있으나 75세를 넘어서면서는 뇌졸중이 많아지고 있으며, 3대 성인병을 연령별로 변화하는 인구10만당 사망율을 보려는 다음과 같다.

기생충표어 ●

무서운 기생충 증 검사받아 치료하자.

한국기생충박멸협회